

출장 복명서

1. 출장자: 문종철 (국제산업협력실 해외산업팀 부연구위원)
2. 출장목적: 하기 출장목적에 위한 원장님 현지기관 방문 수행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공동개최 국제세미나 (2014년 5월 예정, 3~4 sessions) 관련 논의
 - 상호 연구주제 교환
 - 국제세미나 진행상황 설명
 - 프랑스 측 주제발표자 확보 요청
 - OECD 와 연구협력 및 인력교환 방안 논의
 - 프랑스 국제정보전망연구센터(CEPII)와 연구협력 방안 논의
 -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과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및 연구협력 방안 논의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과 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협력 방안 논의
 - 유관기관 방문: OECD 한국대표부

3. 출장일정: 6박 7일, 2014. 3. 4.(화) - 2014. 3.10.(월)

일정	장소	목적
3월 4일(화)	- 파리 이동	14:00 출발 (대한항공 901편)
3월 5일(수)	- OECD -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원 - 프랑스 국제정보 전망연구원	12:00 이시형 OECD 한국대표부 대사 예방 15:00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방문 16:30 프랑스 국제정보전망 연구센터 (CEPII) 방문
3월 6일(목)	- OECD -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10:30 OECD 농업무역위원회 개발국 방문 14:30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DSTI) 방문, 국장, 부국장 면담 17:30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 방문
3월 7일(금)	-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원	11:00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CNRS-INSHS) 방문
3월 8일(토)	- 파리	원장님 개인일정(파리 주재원 회합)
3월 9일(일)	- 파리	16:15 원장님 독일방문 전송
-10일(월)	- 서울 귀국	20:20 서울행 비행기 탑승 (대한항공 902편)

4. 숙박 및 교통, 통역

○ 3. 4(화)~3. 9(일) 파리 5박

- 호텔명: Millenium Hotel Paris Opera
- 호텔 주소: 12 Blvd Haussmann, Paris 75009
- 전화: + 33-1-4949-1600

○ 현지교통편: 차량 대절.

- 가이드: NONOS여행사 이현미 대표
- 차량은 5일(수), 6일(목), 7일(금) 3일간 사용

5. 방문기관 및 면담내용

(1) 주 OECD 한국대표부

1) 개요

- 일시: 3월 5일(수) 12:00-13:00
- 면담자: 이시형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
- 동석자: 정기준 주OECD 한국대표부 공사
김지희 주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

2) 면담내용

□ OECD 인력파견 가능성 논의

○ 인력파견에 대한 대표부의 협조가능성 논의

- 대표부는 인력파견이 국익에 도움이 되면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국 일각에서 OECD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측의 예산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후발국가의 위치이므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을 파견하여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수준을 따라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견해를 밝힘.
- OECD 일각에서는 특정국가의 파견인력이 너무 많으며 OECD에 대한 명확한 기여 없이 사무국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비로 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OECD의 업무를 추가 비용 없이 수행해준다는 점에서 OECD는 환영할 입장임.
- 단, 파견국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할애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럽의 소규모 국가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함. 그리고 한국이 사무실 운영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인력을 파견하면 그것을 선례로 삼아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타국가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대표부로서는 타 회원국에게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용까지 대면서 OECD에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해야 함.
- 다른 나라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OECD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어 인력파견과 비용분담을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
- 인력파견 건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음.

○ 연구원 입장에서 OECD에 인력파견의 기회의 중요성 강조

- 연구원의 대외관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 현재 연구원의 국제적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5월 중순에 CNRS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도 그 일환임. 그 외에도 산업연구원이 보여줘야 하는 국제적 역할이 필요함.
- 최근 연구원의 경향이 대체로 국내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제적 수요가 있으나 연구원 내부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부족함. 따라서 국제적 competence를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음.
- OECD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 무역 투자 관련 위원회 활동 및 주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산업부와의 협력 하에 OECD 관련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문호를 개방할 생각
- OECD DSTI에도 그러한 의도를 전달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인력교환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임

□ OECD가입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협조 가능성 논의

○ OECD에서 산업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

- 한국인력의 OECD에서의 성과가 우수하고 OECD가 아시아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OECD에서도 산업연구원의 인력파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올해 OECD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위원회를 발족하는데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보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음.
- 동남아시아와 연결해서 한국이 매개가 돼서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데 OECD에서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관련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 환영할 것임.
: 한국측의 적극적 수용자세가 중요

○ OECD 가입 2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논의

- 2016년에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의장국은 2009년에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기념이 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초부터는 예산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회의 도움이 필요.
: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 대표부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를 바람.
- 세미나는 KDI 등 개별연구기관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하는 쪽이 다른 연구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음.

(2)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

1) 개요

- 일시: 3월 5일 (화) 15:00-15:20
- 면담자: 티에리 드몽브리알(Thierry de Montbrial,
프랑스국제관계연구원장)

2) 면담내용

- 연구원 주최 국제 세미나에 발표자 파견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조 요청

(3) 프랑스 국제정보전망 연구센터(CEPII)

1) 개요

- 일시: 3월5일 (화) 16:30-18:00
- 면담자: 데니즈 위날(Deniz Ünal, CEPII 연구교수)
세바스티앙 장(Sébastien Jean, CEPII 국장)
미셸 푸앵(Michel Fouquin, CEPII 자문역)
에블린 두리유-피어(Évelyne Dourille-Feer, CEPII 연구교수)

2) 면담내용

○ 국제 세미나 발표자 파견과 관련된 논의

- 같은 시기에 베를린에서 유럽-아시아 경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발표자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아시아에서는 서울대를 비롯 중국, 일본 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유럽 측에서는 CEPII 등이 참여하는데 CEPII가 주관기관 중의 하나라 해당 컨퍼런스를 소홀히 할 수 없음.

○ KIET-CEPII 협력관계 재개에 관련한 논의

- 공통 관심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협력 가능
-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음.

○ 인력교환과 관련된 논의

- 원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의에 CEPII에는 교환연구원의 체재와 관련하여

약간의 비용을 분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함.

- 단, 조건은 해당 연구원이 CEPII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고 체류기간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함.

○ 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와 관련된 논의

- CEPII는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상호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 세미나의 주최를 환영하는 입장. 단, 상호 간의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음.
- CEPII와 연구원 모두 Think tank와 연구기관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미나 참가자는 정부 고위급 인사·정책 입안자·관계분야 전문가·산업 관계자·언론기관 등이 바람직함.
- 세미나의 대상도 일반대중이 아닌 정책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관계자 및 정책입안자·관계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CEPII는 무역의 미시적 측면, 무역정책, 국제 거시금융경제 및 신흥경제와 국가간 인적 이동 등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세미나에 발표자를 초청해주기를 바람.
- 그 외의 CEPII의 주관심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brochure, website, newsletter 등을 체크하기 바람.

○ CHELEM database 공유 관련 문제

- CHELEM database는 유료구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포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알아봐야 함.

(4) OECD 농업무역위원회 개발국 방문

1) 개요

- 일시: 3월 6일(목) 10:30-13:00
- 면담자: 트루디 위트브룩(Trudy Witbreuk, OECD 농업무역위원회 개발국장)
라에드 사파디(Raed Safadi, OECD 농업무역위원회 부국장)
에브도키아 모이세-리만(Evdokia Moïsé-Leeman, OECD 농업무역위원회 무역정책 수석연구원),
바바라 플리스(Barbara Fliess, OECD 농업무역위원회 수석연구원)

2) 면담내용

○ 무역분야 연구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무역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원과 협력하는데에 관심이 있음.
-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는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농업 무역국의 주관심사는 무역, 투자 및 관련 정책이며 특히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산업과 무역에 관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 관련 정책과 기술력 향상에 관심이 많음.
-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도 그 중 하나로 농업무역국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부가가치 무역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부가가치 무역을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연결

○ 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에 관심있는 발표자의 참여를 요청

- 4월 17일에 있는 ITC, 나고야 대학 등과 공동주최 세미나에 관심을 보임.

○ 산업부가 참가하는 회의에 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참석자 파견 가능성 논의

- 회의 참석에 산업부와 연구원이 정보 및 기회를 공유하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
- 연구원이 서비스 분야 무역을 강조하는 OECD 농업무역위원회의 최근의 경향에 맞추는 것도 중요함

○ OECD에 연구인력 파견 가능성 여부

- 긍정적으로 검토. 단, 인력파견이 상호 이익에 합치되어야 하고 관심 연구분야가 일치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무역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참조할 것을 권장
- 현재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협정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그 외에 수출세, 관세, 보조금, 재할용가능 자원 및 폐금속 등과 관련된 논의가 현재 OECD 농업 무역국의 주된 관심사임.
- 서비스 무역과 창조경제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5)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DSTI)

1) 개요

- 일시: 3월 6일(목) 14:30-15:00
- 면담자: 앤드류 와이코프 (Andrew Wyckoff, OCED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국장),
더크 필라트 (Dirk Pilat, OCED 과학기술산업위원회 부국장)
닉 존스톤(Nick Johnstone,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구조정책국장)
- 동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과장

2) 면담내용

○ DSTI와의 협력가능성 논의

- 위원회 회의나 글로벌 포럼 등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혹은 산업부를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OECD에 연구원 인력을 참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
- DSTI가 산업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구원 기능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특히 연구원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OECD에 큰 도움이 되고 OECD 내부에서 한국의 기여도에 비해서 대표성의 측면에서 비중이 작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의사가 있음.
- 단, DSTI 측에서는 위원회 회의에의 연구원 인력 참가나 OECD에의 인력파견에 관한 결정권은 결정권은 우리 정부 쪽에 있다는 견해를 밝힘. 그 외에 파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부족이 우려됨
-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체재 가능여부가 중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 작문과 구사 능력이 요구됨. 또한 연구자의 연구내용이 한국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것도 중요
- 연구인력의 파견 및 위원회 회의, 글로벌 포럼 등의 참석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할 예정임.

○ 연구원 주최 국제 세미나에 발표자 파견 가능성 논의

- 현재 OECD의 hot issue가 되고 있는 의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며 산업 측면에서는 미시데이터의 사용 확대, 각 국가의 산업·기업 정책의 평가, 기술력 혁신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선 등이 주요 연구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음.
- OECD의 issue와 합치된다는 점에서 10월에 맨체스터 대학,

Fraunhofer 등과 공동개최하는 Service Innovation & Creation of New Business 세미나, ITC·나고야대학교 공동 주최하는 Application of Multiple Region Input-Output for Small & Medium Side Enterprises 세미나, 6월 말 경에 IFM과 공동개최예정인 Re-industrialization in Manufacturing 세미나 등에 관심을 보임

(6)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

1) 개요

- 일시: 3월 6일(목) 18:10-18:30
- 면담자: 세바스티앙 르셰발리에(Sebastien Lechevalier,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

2) 면담내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CNRS 공동 세미나의 주제 확인

- 세미나의 목적이 low-growth와 aging society의 탈피 방안에 관한 논의에 있음을 재확인
- 르셰발리에 교수 자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의사를 피력

○ 공동 세미나에 초청할 발표자 섭외 요청

- 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세션(reviving industry)에 프랑스측 발표자 초청에의 협력을 요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counterpart인 CNRS의 책임자인 Patrice Bourdelais의 허가가 필요하나 Chevalier교수 자신과 직접 연결되는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CNRS측의 도움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음.
- EHESS와 CNRS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일본, 프랑스-독일 간의 4국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

(7)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인문사회과학연구원(CNRS-INSHS) 방문

1) 개요

- 일시: 3월 7일(금) 11:00-11:45
- 면담자: 파트리스 부르들레(Patrice Bourdelais, CNRS
인문사회과학 위원장,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샹탈 칸말렉(Chantal Khan-Maleck, CNRS
유럽국제협력연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2) 면담내용

- 5월 중순에 있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공동주최 세미나에 관한 논의
 - 일정은 CNRS 측의 사정에 의하여 월-화요일을 선호. 따라서 5월 12-13일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 왜 굳이 프랑스어로의 발표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통역 섭외의 편리성과 청중들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
 - 세션당 시간은 3시간 정도, 각 주제별 발표시간은 30분 정도 확인
 - 발표자뿐만 아니라 세션 별로 프랑스 측 토의패널을 참석시키는 것도 환영
- 세션 별 발표자 섭외에 관한 논의
 - i) 제1세션 (연구원 담당)
 - 발표자 파견에는 큰 문제가 없음
 - 단 re-industrialization이라는 용어가 과거로의 회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표명

ii) 제2세션 (보건사회연구원 담당)

- 은퇴 연령 상한의 상승 현상에 대한 논의
: 연령 상한(age ceiling), 생존곡선(survival curve), 고령자(elderly people)에 대한 복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
-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었으나 진행은 더딘 반면 독일은 비교적 늦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고령화가 시작되어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토의
-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CNRS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에 있는 Jean-Marie Robin 박사를 추천하며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했음.

iii) 제3세션 (여성정책연구원 담당)

- 서유럽 지역의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성 차이에 관한 문제가 주된 쟁점임을 소개
: 그 외에 양성평등 문제의 자연과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주된 관심사임.
- Working family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CNRS의 Sandra Laugier 박사가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야임
- 해당 세션의 발표자는 INED에서 추천할 수도 있음.